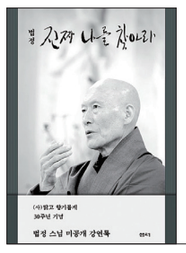
“위기의 현대 인류, 사람답게 변모해야”



진짜 나를 찾아라
법정 스님 지음
샘터 펴냄/ 1만8천원

법정 스님 육성 강연 책으로 엮어
입적 14년 만에 처음 대중에 공개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과 위로 담겨
맑고 향기롭게 창립 30주년 기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무소유’라는 단 세 글자로 한 시대를 깨웠던 법정 스님(1932~2010·사진). 스님의 또 다른 이름 ‘무소유’는 종교와 세대, 이념 등 많은 경계를 넘어선 어른의 ‘말씀’이었다. 스님이 입적한 지 14년이 흐른 지금도 대중은 한 시대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그 문장들로 스님을 기억하고 있다. 더 이상 스님의 새로운 문장을 볼 수 없는 오늘, 그 아쉬움을 달래줄 책이 나왔다. 스님의 생전 육성 강연을 글로 풀어 엮은 〈진짜 나를 찾아라〉이다.

책은 샘터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발간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이 1994년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라는 실천 덕목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책 〈진짜 나를 찾아라〉는 법정 스님이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부산, 춘천, 대구, 창원, 광주, 청도 등 전국에서 진행했던 강연을 글로 풀어 엮은 것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책 속의 강연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늘날처럼 사람의 가치가 추락한 때가 있었는지 생각해보곤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처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답게 변모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변모한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 변혁을 통해 거듭거듭 스스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스님이 발표했던 문학은 선지식의 깊은 사유에서 비롯된 가르침이라는 가치와 더불어 스님만의 ‘글맛’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대중에겐 큰 즐거움이었다. 그간의 저서들이 스님의 그런 글맛을 느끼고 즐길 수 있었던 것이었다면 이번에 출간된 〈진짜 나를 찾아라〉는 법정 스님의 ‘말맛’을 경험하는 책이다. 스님의 말맛은 스님의 글맛 못지않다는 것이 이번 책의 이유다.

스님의 강연은 말이자 글이다. 그대로 받아적으면 훌륭한 한 편의 글이 된다. 교훈과 유머, 위로와 격려까지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책을 읽다보면 나지막이, 때로는 격하게 말씀하시는 법정 스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더구나 강연 내용이 20~30년 전의 말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의 대중에게도 크나큰 가르침과 위안을 준다. 어쩌면 점점 더 진짜 나의 모습을 잃고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준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시간이나 공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법정 스님은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른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근원적인 물음 앞에 마주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아성찰을 위한 고독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책 〈진짜 나를 찾아라〉는 인간, 삶의 본질, 시대의 어려움, 선(禪), 불법(佛法), 인간과 자연의 관계, 환경, 인연, 가족의 의미 등 여러 방편들로 한 시대의 대중을 다시 깨운다.

책 〈진짜 나를 찾아라〉는 AI(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또 다른 인류를 낳은 오늘의 인류에게 난초 두 분에서 시작된 ‘무소유’라는 사유의 아포리즘이 여전히 유의미한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여전한 가치를 삶 속 깊이 들여놓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스님의 육성은 또 한 번 경책의 죽비로 다가온다.

기도, 왜 하는 걸까?



기도의 이유
중현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2만2천원

기도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부터
기도의 핵심, 〈천수경〉 해설 다뤄
지식 · 정보보다 핵심적 개념 소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사찰에서는 많은 불자들이 관음기도, 신중기도, 수능기도 등 다양한 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 왜 하는 것일까.

책 〈기도의 이유〉는 기도를 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부터 불교 기도의 핵심 요소, 기도하거나 불공을 드릴 때 가장 많이 독송하는 〈천수경〉의 해설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관음기도 등 불교 속의 기도는 물론, 민간신앙과 결합된 칠성기도, 산신기도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책은 불자들이 일상적인 신행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기보다 불교의 핵심사상에 입각해 자기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소소한 지식이나 정보보다 핵심적인 개념을 소개한다.

저자 중현 스님은 “이 책을 읽다보면 자신과 주변의 이익만을 위해 기도하던 순간을 뛰어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잠재우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으로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1장 ‘우리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서는 고통과 불안을 피할 수 없는 중생들의 삶을 살펴본다.

2장 ‘종교적 믿음과 불교의 믿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기존 종교의 위상을 다루고, 이어서 믿음을 종교적 신앙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게 이해한다.

3장 ‘〈천수경〉 해설 – 귀의, 참회, 발원은 기도의 모든 것’에서는 〈천수경〉을 해설한다. 〈천수경〉의 특징을 살펴보고, ‘찬탄 – 귀의 – 주력 – 참회 – 발원’으로 이어지는 〈천수경〉의 기본 구성이 지닌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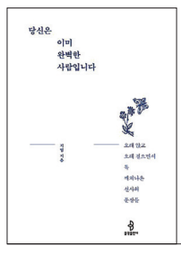
4장 ‘불교의 기도와 수행’에서는 불교에서의 기도, 예불, 불공이 결국 모두 수행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5장 ‘이런 기도 저런 기도’에서는 관음기도, 아미타기도, 신중기도 등 다양한 기도에 대해 알아본다.

6장 ‘불교와 민간 신앙’에서는 산신신앙, 칠성신앙 등 불교 속으로 들어온 민간신앙들에 대해 살펴본다.

중현 스님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는 여전히 전통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불교가 일상화되려면 우선 불자들의 일상 속에 불교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고, 불자들의 삶에 불교의 수행이 녹아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불교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비로소 우리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자

지혜 필요한 순간에 만나는 선사의 문장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지범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1만7천원

“요즘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가 흘러넘친다. 그러한 정보가 기회와 지혜를 충만하게 제공해줄 것 같지만, 오히려 혼란스러움만 부추긴다. 이런 혼란과 혼돈 속에서는 오히려 내 안에 정답이 있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혔던 모든 인식과 업을 내려놓고, 내면의 울림에서 맑고 청량한 나를 만나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며, 충분히 완벽한 사람이다.”

세상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지만 각자의 삶이 세상의 속도와 똑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속도의 차이에서 개인의 고민은 깊어진다. 세상의 속도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겪어야 하는 힘겨움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지범 스님의 수필집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는 스님이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지혜의 문장으로 가득하다.

1장은 스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치열했던 삶의 기록, 2장은 흥미롭고 감동적으로 펼쳐지는 선가의 이야기, 3장은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진리의 가르침, 4장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깨달음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책은 지범 스님이 펼쳐놓은 따뜻한 이불 같은 수필집이다. 어느 글을 골라 읽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시 힘차게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이사(理事)를 겸비한 스님만의 탁월한 안목과 포용력이 고단한 삶에 지혜의 빛을 밝혀준다.

지범 스님이 담백하게 풀어놓는 이야기 속으로 빠지다 보면, 어느덧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지혜에 다가가게 된다. 세상살이가 한결 쉬워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그렇게 모자라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자신이 어느덧 든든하고 대견스럽게 느껴진다. 여기까지 잘 견디며 꿋꿋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이 이미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으면 될 뿐이다.

지범 스님은 말한다. “아직도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본래 완벽한 부처이다. 새가 나무에 앉을 때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오직 자신의 날개를 믿을 뿐이다.” 박재완 기자



대장경 연구에 대한 독보적인 책!
새로 쓰는 대장경의 성립과 변천
인도에서의 불교경전 성립에서부터 티베트, 중국, 한반도, 일본으로의 전래와 그들 지역에서의 경전 수용과 번역, 변용의 과정을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교토불교각종학교연합회 편/박용진 · 최종남 역/신국판/388쪽/값 25,000원

마음에 관한 가장 깊고 치밀한 탐구!
유식학으로 보는 몸과 마음
현대 심리학의 개념인 인간의 ‘정서’와 ‘인지’를 유식학의 관점에서 논하고, 나아가 양자를 비교 분석하여 몸과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안환기 지음/신국판/340쪽/값 23,000원

‘클래식’과 ‘불교’를 융합하는 독창적 시도!
클래식, 경계를 넘어
‘보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클래식과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 붓다의 가르침이 만나 엮어내는 심포니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행복으로 이끌어준다!
김준희 지음/국판변형/240쪽/값 20,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